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제452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송영길 구속 심사 시작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제1야당 전 대표 구속 기로…돈 봉투·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영장심사 앞둔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4

분께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둑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모면하려고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외 선거자금을 받은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

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

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 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 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 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 월 외과 후원조직인 면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

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을 침해하는 대규모의 금권선거이자 공의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한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 송원기 기자

순찰 강화했는데도…경복궁 담벼락 하루만에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찰이 도심의 주요 문화재 주변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했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저지른 탓에 모방 범죄를 막지 못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

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

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

/ 박지원 기자

정부, 연이틀 北 미사일 도발에

“대북제재 위반…한미 압도적 대응할것”

정부는 북한의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단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앞서 지난 17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 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달 여만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틀 도발과 / 박영찬 기자

‘김포철도·경인국철’ 전철 지연 속출

한파 속 출근대란



졌다.

승객 권모씨는 “김포골드라인 전차 고장으로 운행이 멈췄다”며 “출근길에 다들 난리인데 언제 운행 가능한지 알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 조모씨도 “전동차 고장으로 버스 대란에 출근 길은 지옥”이라며 “최소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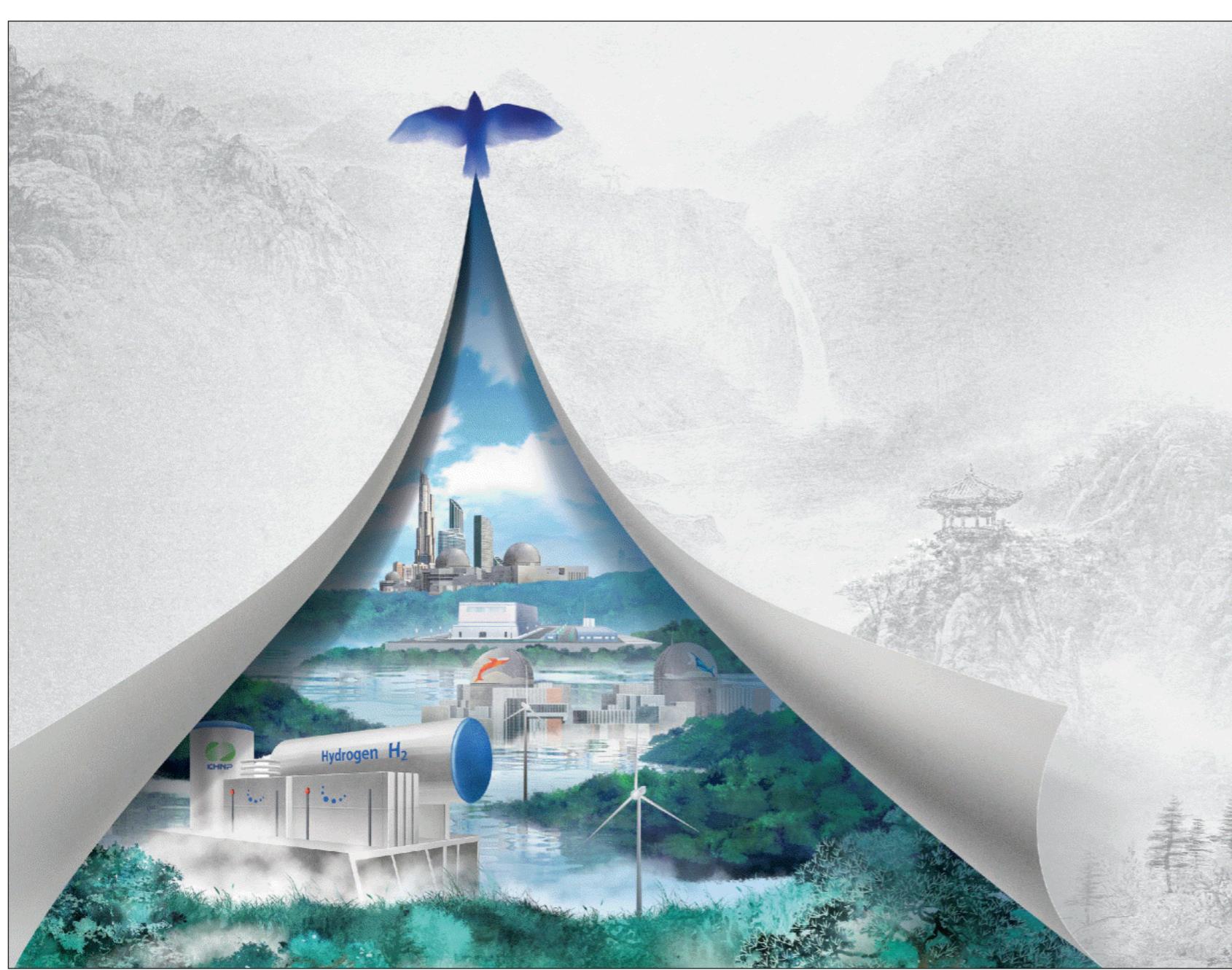
씩 지각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운행 재개 후 열차 내부를 활영한 영상에는 이미 가득 찬 2량짜리 열차에 시민들이 계속 탑승하자 비명이 나오는 모습도 담겼다.

김포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열차 운행 장애로 운양역~양촌역 구간 열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측은 구래~장기역 구간에 대체 버스 10대를 투입했으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진성훈 기자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1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화

한국수력원자력주

민주, '이낙연 신당' 불가론 확산…“갑자기 신당 얘기하니 황당”

친명계 원외 조직 등 “명분 없는 창당, 협된 정치적 욕망 때문”…100여명 반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의지를 굳히기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단합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한데 이 전 대표의 창당은 당의 단일 대오를 깨는 해당 행위라는 게 창당 불가론의 요지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는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협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막칠을 하고 선후 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비난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를 신당 창당 이유로 꼽지만, 그 책임은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물어야 한다”며 “명분 없는 창당은 이 전 대표의 협된 정치적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는 이광재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 를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초선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해 지난 14일 시작된 ‘이낙연 전 대표



발언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늘린다…중소병원 필수의료 성과 보상

정부, 지역병원 맞춤형 육성…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정부가 교수 정원 확대, 시설 첨단화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의 중소병원에는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게 사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

하는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 전달체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평가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지역 병원 육성방안이 자리 잡도록 수요에 맞게 전국의 병상을 관리하는 한편,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3개 권역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간 협진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별로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대·조선대병원과 지역 중소병원 측은 한 목소리로 지역 전공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부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통합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웅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4인도 당장 만나라”며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추진은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송원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

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는 위법 소지…엄중 조치”

보건복지부는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했다.

복지부는 종전에 다닌던 의료기관이 휴일이나 야간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 의료포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민성호 기자

공수처, 특수본 폐지…기존 사건은 신설 수사부서가 담당

수사부 확충·공소부 폐지 감사원·채상병 사건 수사4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없애고 정규 수사부서를 확충했다.

공수처는 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대신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

공소부가 폐지되면서 대대한 공소부장이 특임 부장을 맡아 이끌던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도 자동으로 폐지된다.

/ 신재일 기자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건설산업의
내일을 연주합니다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공간의 완성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건설에 가장 어울리는 화음, 건설공제조합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노래합니다

The Best Guarantee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박진 “日에 할말 당당히 하는 게 중요…진정성 행동 이어지길”

‘아시아판 나토’엔 “필요하다고 생각안해…검토한적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야당이 비판하는데 대해 “일본에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일 굴종 외교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외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나온 ‘일본에 저자세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 외교적으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속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기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올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가 정상화됐다고 돌아보며 “나머지 물컵 반에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먼저 물컵 절반을 채웠고 나머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방송에서 “(채워진 게) 보이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

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며 경제·통상 실질적 분야에서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5월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사례는 “말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미일 결속이 북중러 밀착을 가속화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결속하는 건 공통 가치에 입각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거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

기적 입장에선 한-러 간에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일명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범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범안은 최근 북한 등 위협 증대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미 나토와 한국간 실질적 협력관계가 진행되고 있기에 그런 차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연계돼있다는 차원에서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드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히 아

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엔 러시아와 북한간 밀착 관계가 형성돼 있어 중국도 나름대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은 계속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다며 시 주석 방한 무산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자정상회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기회가 있고 외교라는 건 상호주의적이기에 그간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으니 이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중국 측이 ‘조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건 없다”며 “다만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했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도영 기자



‘난방비 부담’ 기초수급자에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하세요”

내년 1월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최대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 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면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라면 59만2천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번 겨울철에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발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 남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국민소득에 비해 높다”

“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

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해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 이진욱 기자

정부 “日 물고기 폐사·작업자 피폭, 국민 안전에 영향 없어”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피폭 사고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훗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일본 측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나,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향후 제시하게 될 공식적인 원인이 무엇이든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친다”며 “일본에서의 물고기 폐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 폐로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염수 누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할지는 더 지켜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차현우 기자

SAMSUNG



가전을 나답게.

목포해경, '전남 서부권 마약 공급책' 베트남인 구속

일용직 노동자 위장해 18개월간 도주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A씨가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상 B씨에게 엑스터시 200정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해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목포해경은 A씨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라는 침보를 입수,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해경의 추적을 눈치챈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쓰며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광주, 대구, 경기等地의 건설 현장을 떠



마약 공급책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은신처 수색하는 해경

돌았다.

일 해경에 체포됐다.

약 18개월에 걸친 도주 생활을 이어간 A씨는 목포시 산정동의 모처에서 지난 6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올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약 공급책 겸겨 성과를 거뒀다. 체포 당시 A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항정신성의약품 케타민 2.17g(약 72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통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목포해경은 엑스터시, 케타민, 아바 등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잇달아 겸겨하기도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 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직화,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두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기사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기사 A(61)씨

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씨를 모델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델에 데려다준 후 모델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는데,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행 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수 기자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 용의자 하루 만에 50대 검거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강도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강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를 쫓았다.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썼던 A씨는 이후 옷을 갈아입으며 거리 CCTV 사각지대를 피해 다녔지만,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그의 자택은 범행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최준용 기자

최상목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국정농단 사건엔 "수사·재판 지켜보며 많은 충격"

의 질의에는 "별도의 만담을 가진 적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제 개인의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선 "경제수석으로부터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추어 한-중 문화협력 MOU

를 체결할 민간 문화재단을 기업들이 만들기로 했고 그 설립작업을 전경련이 하기로 했으니 실무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재단설립의 큰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절차 진행 등 실무적인 사항

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선 "실무회의에서는 통상적인 기본재산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경제수석이 설립 초기 탄력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운영재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이런 의견도 전경련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전경련이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영혼 없는 엘리트 관료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는 "당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

를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좌우명으로는 "심광체반[心廣體 반(月+半)]을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심광체반은 '대학'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부끄러움이 없으면 마음이 관대해지니 몸도 반듯하게 된다는 뜻이다.

2017년 재산등록 이후 5년 만에 20억 원가량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선 "재산 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평가액"이라며 "그 외에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등"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 최근 10년간 외부 직책으로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울산대 사회과학부 초빙교수▲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농협대학교 총장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배우자에 대해선 "동녀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가족의 사업 여부에 대해선 "장남이 2023년 7월 18일 에비덴트㈜를 설립했다"고 각각 밝혔다.

/ 한영민 기자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 손현수 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다

수십만 번의 리시브와 수백만 번의 스매싱
땀과 투혼을 쏟았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코트에 새긴 투혼의 발자국
대한민국 배드민턴 세계 정상이라는 역사

삼성생명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자랑스러운 '삼성생명 배드민턴단'입니다

CJ올리브영에 쿠팡·다이소까지 '화장품 배송' 전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결정된 바 없어...담뱃세 인상 계획 없다"

CJ올리브영에 이어 쿠팡, 다이소까지 '화장품 배송' 전쟁에 뛰어들었다.

각 사의 화장품 주력 상품과 배송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을 두고 퀵커머스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CJ올리브영은 17일 화장품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 드림'의 올해 1~11월 이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온라인 주문 절반 이상이 일반 택배 배송이 아닌 '오늘 드림'으로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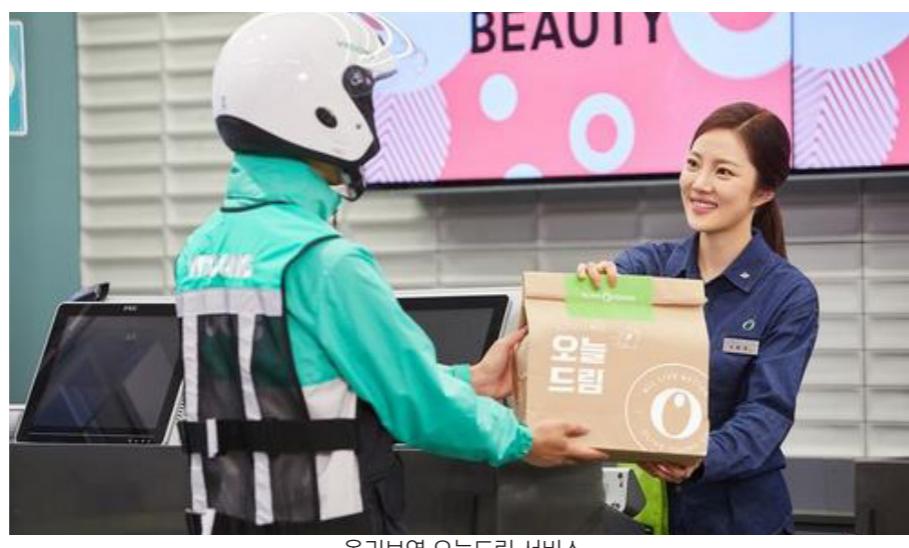
올리브영은 2018년 12월 화장품 업계 최초로 즉시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리브영은 고객이 모바일 앱과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주소지 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배달 업체에 맡겨 물류센터에서 발송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배송하고, 매장 재고 관리 효과까지 동시에 얻는다. 전국에 올리브영 매장 수는 1천 300개에 육박한다. 판

매 제품 중 중소기업의 독립 브랜드, 이른바 '인디 화장품'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같은 날 3시간 이내 도착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의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이 45분으로 집계됐다. 3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신선 식품만 빠른 배송이 필요할 것이라는 업계 관행을 깨고 화장품에도 즉시 배송을 적용했다"며



올리브영 오늘드림 서비스

"앞으로도 매장과 온라인몰을 연계한 '옴니채널' 시너지를 기반으로 배송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이를 위해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늘리고 있다. 물류거점은 2021년 MFC 강남점을 시작으로 서울 지

배송을 시작했다. 기존 로켓배송과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서 직배송하고,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배송·무료반품 혜택을 준다. 로켓러셔리에는 에스티로더, 맥, 바비브라운, 록시땅, 아베다 등 고급 브랜드가 입점했다.

쿠팡, 명품 화장품 새벽 배송·다이소, 가성비 화장품 익일 배송

여 7개 권역과 경기 2개 권역 등 9곳에 있으며 내년에는 광역시에도 진출한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원하는 매장에서 바로 찾아가는 '오늘드림 픽업' 서비스 이용 건수도 올해 1~11월 120만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올리브영

이 한 가지였으나, 최근에 상품 크기에 따라 고급 포장을 달리 해주고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일 로켓러셔리에 비오텁과 어반디케이트로 꾸몄다.

로켓러셔리 오픈 당시에는 포장 규격이 한 가지였으나, 최근에 상품 크기에 따라 고급 포장을 달리 해주고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일 로켓러셔리에 비오텁과 어반디케이트로 꾸몄다.

쿠팡은 해당 브랜드 한국 본사에서 직매입한 100% 정품만 판매하고, 스페셜 패키지로 고급 포장한 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꾸몄다.

로켓러셔리 힘을 주는 사이 쿠팡은 고급 정품 화장품 배송에 주력하고 있다.

쿠팡은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

켓러셔리'를 올해 7월 열고 화장품 새벽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백화점 1층과 면세점에서 판매되던 고급 브랜드 화장품이 온라인으로 판매 무대를 넓혀 채널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다.

가성비 화장품 품목을 점차 늘려온 다이소 15일 전 품목 익일(다음날) 전국 배송을 선언해 화장품 배송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이소의 올해 1~10월 기준 기초·색조 화장품 매출은 작년 대비 180% 증가했다. 다이소는 네이처리퍼블리크와 다나한, 클리오, VT코스메틱 등과 협업한 화장품을 5천원 이하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VT코스메틱이 다이소 판매용으로 만든 리들샤 페이셜 부스팅 앰플(3천원)이 품절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다이소에서 화장품은 평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안성물류센터에서 한진 택배에 맡겨 다음날 도착한다. 3만원 이

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한다. 균일가 생활용

품점으로 임지를 굳힌

다이소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화장품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온라인 패션 플랫폼도 화장품 배송 판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의 화장품 전문관 '무신사 뷰티'의 올해 거래액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그재그의 '직제 뷰티', 에이블리의 '에이블리 뷰티'도 입점 화장품 브랜드 및 거래액이 늘고 있다.

/ 백규영 기자



소감 말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빗장을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후보자의 겸종된 업무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

판으로 기업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부문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방문구 장관이 지난 9월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교체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좀 아픈 분야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요새는 정치 분야가 위낙에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세준 기자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에너지를 보냅니다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송변전시설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움직이는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내년부터 소주 10% 짜진다...참이슬 출고가 1천247→1천115원

국세청, 소주 기준판매 비율 22.0% 확정...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소주 가격 인상하는 하이트진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종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짜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종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종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

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불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짜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종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 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kg당 88만5천 700원, 막걸리는 1kg당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 양승민 기자

"막걸리 먹인 감귤·하트 키위"…이마트, 프리미엄 과일 선봬

이마트는 이번 겨울 이색 프리미엄 과일을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막걸리를 비료로 먹고 자란 '품평회 대상 감귤'을 판매한다.

이 감귤은 수분 흡수를 막고 햇빛을 반사해 당도를 높이는 '타이베이재배'에 막걸리 농법을 결합해 당도를 11~12브릭스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7주간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이다.

당도 기준이 12.5브릭스로 감귤 중 가장 높은 '불로초 감귤'과 '고당도 감귤'도 1월까지 매장에서 판매한다.

이마트는 또 당도 높은 제주 키위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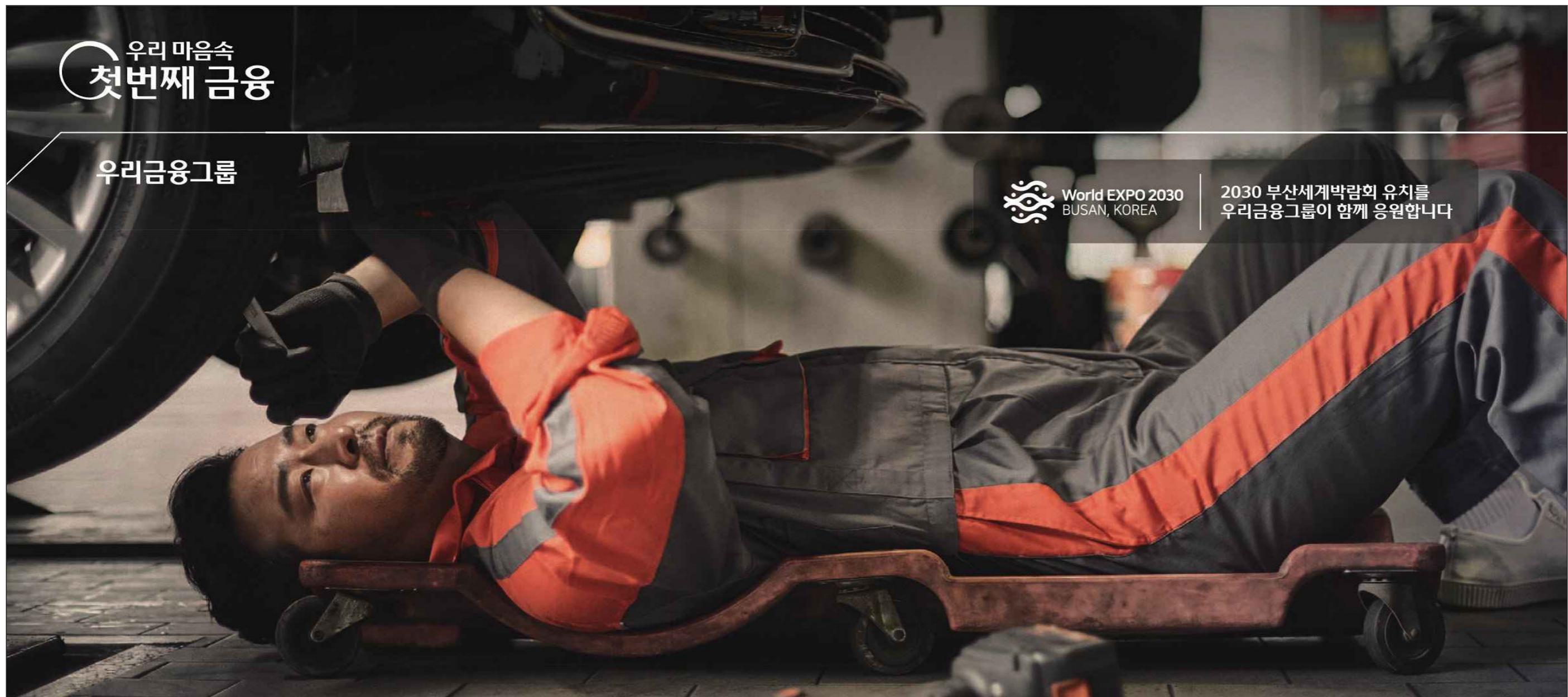
'루비골드 키위'는 레드키위와 골드키위를 접목해 당도를 끌어올렸고, 외관이 하트 모양인 '하트골드 키위'도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다.



일반 그린키위보다 당도가 높은 희귀 품종인 '에메랄드 키위'는 오프라인 매장 중에는 이마트에서만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달 1~14일 고당도 프리미엄 감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하는 등 당도 높은 과일을 찾는 순길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권정석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오세훈 애정템’ 서울 후드티 동났다…서울시 굿즈 인기몰이

‘소장각’ 픽토그램우산·도넛머그컵도 이틀만에 완판 행렬…“추가 제작”



서울시 굿즈 ‘서울마이소울’ 회색 후드티

서울시가 선보인 ‘서울마이소울’ 굿즈들이 이를 만에 ‘완판’되는 등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크리스마스마켓에 문을 연 굿즈샵에서 판매한 후드티와 픽토그램우산, 도넛머그컵이 품절됐다.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가 완료된 인기 제품은 전면 중앙부에 ‘서울마이소울’의 픽토그램(그림 문자)이 자수로 들어간 회색 후드티였다.

지난 8월 서울의 새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발표할 때 오세훈 시장이 입고 나온 뒤 각종 행사와 일정에서 자주 착용한

것으로, 판매 문의가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텀블러와 노트, 코듀로이 파우치, 유리컵 등 다양한 굿즈들도 마켓을 찾는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후드티에 이어 우산과 머그컵도 빠르게 판매가 끝났다.

시는 시민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품절된 굿즈를 추가 제작하고 사전 예약·온라인 주문 형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마이소울 굿즈를 개발해 서울의 매력을 국내 외로 널리 알려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석훈 기자



광주시-전남도, 민간·군 공항 이전 회동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돌파구 마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공항 2차 회담’에서 광주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기로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민간·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얹힌 실태를 어느 정도 풀렸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것은 지난 4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후다. 이런 가운데 양 시·도지사가 지난 5월 ‘1차 공항 회담’에 이어 7개월 만에 열린 ‘2차 공항 회담’에서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 노력’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공항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1차 공항 회담’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협력한다고 합의하면서 민간 공항 이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해 ‘속 빙 강정 회담’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간 광주시가 군공항을 합평군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군공항 동시 무안 이전을 고수해온 전남도와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양 시도지

사가 이날 회동에서 ‘민간·군공항 이전지역’을 무안으로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지난 13일 무안군민과 대화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정면 돌파’하는 등 민간·군공항 동시 무안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이날 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시장도 회담에 앞서 무안군민과 대화 당시 김 지사의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도 회담 성과에 내심 기대를 나타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 앞서 “시정과 지사에게 부담감이 적지 않은 회담”이라며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오늘 ‘빈손 회담’이 되면 시도민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양 단체장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송현수 기자

인천~서울 광역버스 운행횟수 늘까…준공영제 내년 7월 도입

기사 처우 개선·서비스질 제고 기대…연 400억 지원은 ‘부담’

인천시가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착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경 예산 확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광역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과 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가 구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대상은 직행좌석 19개 노선(7개 업체·251대)과 광역급행(M버스) 6개 노선(5개 업체·75대)이다.

직행좌석은 인천 도심과 서울·광명역·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로, 면허권자인 시가 노선별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M버스는 면허권자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회와 협의해 지원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절반씩 분담하는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구상 중이다.

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연간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돼 현재 광역버스 업체들이 구인난으로 면허대수의 70~80%만 운행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기사 친절도 향상 등 전반적인 교

통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러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가 목표로 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현재 186개 노선(34개 업체·1천903대)을 운영 중이다.

노선별로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연간 2천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인천~서울 M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도 제도 도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민준 기자

강원도, 필리핀 전세기 단체 관광객 680여명 유치

18일~내년 1월 3일까지 4차례 양양공항 통해 입국

필리핀 팬투어단 환영 행사

에 걸쳐 입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오전 첫 전세기편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관광객들을 환대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들은 광평 용평리조트에서 스키 체험을 시작으로 춘천 남이섬, 레고랜드 테마파크, 강릉의 BTS 버스정류장 등을 2박3일 돌아볼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월 필리핀 현지를 찾아 한국관광공사 및 필리핀항공총판대리점인 라크소트래블과 양양공항 무사증 전세기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세기 단체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H “성남 신흥3·태평3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신흥3·태평3구역에서 진행 중인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순환 정비는 사업 구역 인근에 마련된 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뒤 정비사업이 끝나면 기존에 거주하던 사업 구역으로 재이주하는 방식이다.

신흥3·태평3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총 6천3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신흥3·태평3구역은 사업 면적 15만3천218㎡(4만6천평) 규모에 3천418가구가, 태평3구역의 경우 12만4천989㎡(3만3천평) 규모에 2천847가구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공원 등도 확충돼 주거환경이 획기적

< 성남 재개발 사업구역 전·후 모습 >

개발 이전

개발 이후

성남 재개발 전후

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025년 말 이들 2곳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1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신흥3·태평3구역과 함께 ‘성남 원도심 재개발 2030-2단계’ 사업 대상 중 하나인 상대원3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단독주택 밀집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성남 원도심은 공공참

여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재정비되고 있다.

특히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 이주단지로 제공해 원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원주민 재정착률은 5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인근 지역의 전세난이나 주택 가격 폭등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 김민성 기자

The Giant 바보

12미터 높이의 거대한 보물, 푸바오를 사진 속에 담아보세요!

Live 나비체험관

매일 5천여마리의 아름다운 나비들을 만나보세요!

원터스파캐비

이국적인 노천탕에서 아유를 개 힐링하세요!

에버랜드 원터토피아

12.8~3.1

EVERLAND RESORT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

'선감학원 사건' 피해 기초생활수급자도 월 20만원 지원금 혜택

도·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온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80명 가운데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예정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1970년대 선감학원 아동들

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안전지원금 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문의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소송 대란 발생

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명을 점을 감안하면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역 발전사업 사이 인과

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인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 박민준 기자



경청스타즈

경기청년 100명 해외기업 현장체험

'경청스타즈' 사업 성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7개국, 9개 도시, 35개 기업서 진행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청스타즈(경기청년스타즈)' 1기 사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청스타즈는 19~34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 필리핀 마닐라(13명) ▲ 베트남 하노이(12명)·호치민(7명) ▲ 대만 타이베이(6명) ▲ 인도 뉴델리(6명)·벵갈루루(7명) ▲ 일본 후쿠오카(30명)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6명) 등 7개국, 9개 도시, 35개 기업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했다.

현지 기업방문 체험은 물론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월드옥타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로그램 참가자 이해민(32岁)씨는 "식품, 유통, 물류, 반도체, 무역, IT,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험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며 "해외 기업에서 만난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운영한 베트남 호치민 프로그램 참가자 권수정(24岁)씨는 "베트남 현지기업 체험을 통해 섬유제조업의 생산부터 수출 업무까지 습득하며 유통과 물류에 대해 배우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경청스타즈 2기 사업에서는 참여 인원과 기업 체험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노건우 기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22만명 참여

한 달 새 17만명 증가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 추가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명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

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명을 점을 감안하면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역 발전사업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인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혜원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콘텐싱을 개발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스비가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했다

보일러 하나가 이제 모두의 자구를 지킨다

콘텐싱이 옳았다

2000년 업계 최초 콘텐싱보일러 KS 인증 획득

2009년 업계 최초 힘소성표지 인증 획득

2015년 브이 콘텐싱보일러 & 은수기 1위

2020년 업계 최초 콘텐싱보일러 미국 수출

1988년 대한민국 최초 콘텐싱보일러 환경미크 획득

1999년 업계 최초 콘텐싱보일러 환경미크 획득

2025·30·31일 4일간 여의도한강공원



콘텐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눈썰매에 크리스마스마켓·스노우돔 샷…한강겨울페스타 개막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강공원 겨울축제…뚝섬·잠원·여의도·망원 등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

지체·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데이' 행사를 연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눈썰매장 리프트를 제작·설치하고 훈련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경계 턱에 진입 발판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야외 수영장, 캠핑장 등 한강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망원한강 공원 서울함공원 안내센터에서 '기차 타고 떠나는 서울함공원 크리스마스 여행'을 주제로 한 '기차역 플랫폼 전시'가 열린다.

안내센터 1층에 설치된 4.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 인형을 비롯해 증기기관차 디오라마 전시·그림책 큐레이션 등을 통해 동화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 지역 내 어린이 50명을 초대해 '기차 타고 떠나는 서울함공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도 한다. 행사는 마술 쇼·캐럴 공연·동화 구연·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용택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과 눈썰매장, 포토존 등 겨울축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내년에도 더욱 신나고 즐거운 축제를 준비해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서울시는 한강에서 열리는 겨울축제를 아우르는 '한강겨울페스타'를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연다고 17일 밝혔다.

22~31일 뚝섬한강공원에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22일 오후 6시 해운대구 군대역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는 마켓은 크리스마스 불거리로 가득 채운 포토존 '메리 빌리지'와 크리스마스 캔들, 오르골,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메리마켓', 겨울철 간식거리로 구성됐다.

쉼터 겸용의 이색 포토존 '스노우 둠'에 선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2m 높이의 투명 스노우 둠 5개를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벽난로, 복주머니 등의 소품으로 실내를 꾸며 추위를 녹이면서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같은 기간 광나루·난지·여의도·강서한강공원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한 강'을 주제로 '한강페스티벌 겨울'이 열린다.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6천원이다. 체험 행사와 놀이기구는 각각 5천~6천원의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시는 눈썰매장의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사전에 모집한

동아·마리
특별시 서울

건강 9 구독 ● 행복 8 팔로우

9988 좋아요



서울시가 스마트워치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19~75세(1948~2004년생) 서울시민
※ 서울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모집인원 15만 명(선착순 마감)
스마트워치 미보유자 : 10만 명 / 스마트워치 보유자 : 5만 명
(단, 갤럭시워치와 애플워치만 가능)

기간 2023. 8. 28.(월) 10:00~모집 완료 시까지

방법 손목닥터9988 누리집(<https://onhealth.seoul.go.kr>) 접속 신청



신청 바로가기

최태웅 감독 “우리가 대표 많이 배출해 한국배구 망치나 생각”

1세트 24-21에서 5연속 실점…대한항공전 0-3 패배에 선수 질책

남자배구 현대캐피탈의 ‘비행 공포증’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현대캐피탈은 17일 인천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항공전에서 세트 점수 0-3으로 무기력하게 패해 이번 시즌 맞대결 3전 전패를 당했다.

1세트 24-21로 앞서가다가 3연속 범실 등으로 5점을 연달아 내줘 먼저 한 세트를 빼앗겼고, 그 여파로 2세트와 3세트는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현대캐피탈의 대한항공전 정규시즌 상대 전적은 2020-2021시즌 이후 3승 18패로 절대 열세다.

이번 시즌 끝날 쭉한 경기력으로 6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듯 했지만, 다시 대한항공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경기 중 작전타임 때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질책했던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한항공전에서 생각에 잠긴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

최 감독은 “진정한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몸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경기장에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는 건 처음엔 마음이 여려서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몇 년 동안 세대교체 작업에 한창이다.

최 감독은 허수봉과 홍동선, 김명관, 김선호 등 장래성 있는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고자 한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한국 배구의 미래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 감독은 “이름만 거창하게 대

표팀에 간 선수들이다. 우리 선수들 대표팀에 많이 가도록 한 제가 한국 배구를 망치나 하는 생각마저 듣다”면서 “발전하려고 시스템부터 마인드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 선택 갈림길에 섰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최 감독이 비판하는 대상은 20대 초중반 젊은 선수다.

그는 “고참들이 우승하려고 얼마나 피땀 흘린 훈련과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은 ‘그냥 현대캐피탈 오면 우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강도 높은 보복성 훈련으로 선수들 괴롭히는 걸 싫어한다. 그렇지만 인성 교육만으로는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대로면 우리 팀 출신 대표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또 실패할 것이다. 이미 훈련량은 늘렸고, 이제는 훈련 강도도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 최준용 기자



취재진 질문 답하는 ‘골든글러브’ 김하성

김하성, 올 MLB 팀 2루수 불발 시미언·올비스 선정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를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로 받은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올해 포지션별 최고 선수 격인 ‘올 MLB 팀’에는 어렵게 뽑히고 했다.

MLB닷컴이 17일(한국시간) 발표한 올 MLB 팀 명단을 보면, 마커스 시미언(텍사스 렌인저스)과 오지 올비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각각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 2루수로 선정됐다.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드 글러브 수상자인 김하성은 ‘작은 거인’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 올해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 황금 장갑을 끈 니코 호너(시카고 컵스)와 더불어 2루수 부문 8명의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프로농구(NBA)를 본 데 MLB가 2019년 제정한 올 MLB 팀은

/ 강희성 기자

김길리, 쇼트트랙 월드컵 서울 대회 1,500m 금메달 석권

홈 팬들의 열띤 응원을 등에 업은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여자 1,500m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23초 74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전날 1차 레이스에서도 1위에 오른 김길리는 이번 대회 여자 1,500m에 걸린 금메달 2개를 쟁취했다.

세계랭킹 1위 김길리는 레이스 초반 맨 뒤에서 틈을 봤다.

네덜란드의 하너 데스메이 12바퀴를 남긴 시점 갑자기 스피드를 올리며 크게 앞서 나갔으나 함께 출전한 심석희(서울시청)가 격차를 줄여 나갔고, 6바퀴를 남기고는 선두에서 레이스를 운영했다.

그 사이 김길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순위를 끌어 올렸고, 3바퀴를 남긴 시점 아웃코스를 이용해 1위로 한 번에 올라섰다.

이후 속력을 높인 김길리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역주하는 김길리

지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석희는 5위를 차지했다.

서휘민(고려대)은 준결승에서 조 2위 안에 들지 못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 양희진 기자

국제삼보연맹 공인 프로삼보리그

‘CSL 코리아’ 출범, 내년부터 대회 개최 목표

러시아 전통 무예인 삼보의 프로화를 추진하는 프로삼보리그가 한국에서 출범했다.

대한삼보협회는 “컴뱃삼보리그의 약칭인 CSL(Combat Sambo League) 코리아가 지난 16일 천안에서 출범식과 시범 경기를 열어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성천 대한삼보연맹 회장과 바실리 세스타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 아르카디 로텐베르그 CSL 초대 회장, 세르게이 엘리세예프 유럽삼보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삼보연맹은 “CSL은 삼보 선수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삼보연맹에 소속된 선수들의 재정적 동기부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천 대한삼보연맹 회장은 “CSL은 UFC 못지않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확신하며, 삼보를 연마해온 선수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반겼다.

출범식 이후 진행한 CSL 코리아 시범경기는 한 라운드당 3분씩 총 3라운드 경기로 열렸다. 한국 선수로는 김성진(64kg급)과 한운성(79kg급)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삼보연맹은 “CSL 코리아는 내년부터 2개월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 치현우 기자

신세계백화점, 대전서 이강인 소속팀 PGS 팝업



신세계백화점은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에서 이강인 소속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팝업 매장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팝업에서는 PSG의 이번 시즌 유니폼과 공식 굿즈를 만날 수 있다.

이강인, 킴리안 음바페 등 인기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과 ‘블랙 컬렉션’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한다. 블랙 컬렉션은 검정색 바탕에 분홍색으로 등번호를 새겼던 2016-16시즌 서드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의류 라인이다.

/ 신영철 기자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행복풍성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밤에 피는 꽃’ 이하늬X이종원, 공조 꽃 피운다!

선 넘고 담 넘는 이들의 찐한 케미. 1차 티저 공개!

‘역시 이하늬’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밤에 피는 꽃’ 1차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내년 1월 12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샘, 정명인 / 제작 베이스스토리, 필름그리다, 사람엔터테인먼트)은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십오 년 차 수절과부 ‘여화’와 사대문 안 모두가 탑내는 갓벽남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 코믹 액션 사극이다.

공개된 1차 티저에서는 낮에는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듬이질을 하는 이하늬(조여화 역)와 밤에는 복면을 쓰고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이하늬가 교차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하늬는 많은 상대들과의 대적 끝에 이종원(박수호 역)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밤에 피는 꽃’ 주인공 이하늬와 이종원

두 사람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하늬와 그런 그녀를 만나면서 기억 속에 묻힌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종원이 아슬아슬한 공조

한 판이 펼쳐진다.

이내 칼을 빼든 이하늬는 누군가를 다시 지켜내고, 현란한 다듬이질과 함께 의문의 사내들을 제압한 뒤 방방이를 내던지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다. 특히 수절과부인 이하늬가 흥에 취해 춤사위를 벌이는 모습은 배꼽을 잡게 만든다.

0차 티저가 이하늬의 살 떨리는 이중 생활을 보여줬다면, 1차 티저는 수절과부 이하늬의 일상과 복면 겸개 이하늬의 삶을 재치 있게 그려내고 있다. 게다가 속도감 넘치는 영상미는 예비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장태유 감독의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연출력과 이샘, 정명인 작가의 탄탄한 집필력이 더해져 최상의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 임연희 기자

JYP 새 일본 보이그룹은 7인조 ‘넥스지’



일본에서 활동할 JYP엔터테인먼트 새 보이그룹의 데뷔 멤버 7명과 팀명이 최종 확정됐다.

JYP는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일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후루를 통해 공개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 2 마지막 회에서 최종 데뷔 멤버와 팀명 ‘넥스지’(NEXZ)를 발표했다.

‘Next Z(G)eneration’(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축약한 팀명 넥스지는 차세대를 책임질 멤버들이 모여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맡은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작명했다.

최종 멤버 7명은 토모야, 하루, 유우키, 켄, 유우, 유우히, 세이타로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예선과 합숙 등 관문을 통과하며 댄스 실력, 가창력, 스타성, 성실함 등을 인정받았다. 넥스지는 오는 18일 일본 TV ‘데이데이’(Day Day)에 게스트로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을 만난다.

‘니지 프로젝트’는 JYP가 일본 최대 음반사 소니뮤직과 손잡고 진행하는 현지 오디션 프로젝트다. 지난 2020년 시즌 1을 통해 배출한 걸그룹 니쥬(NiziU)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티와 영원의 탑’ 만장일치 호평 화제! “재미와 감동 모두 잡았다!” 강력 추천 K-애니메이션!



국내 1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연예계 셀럽들이 참석한 ‘도티와 영원의 탑’이 크리에이터 시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도티즈인 도티, 엘언니, 밍모, 코야가 현실과의 경계가 사라진 게임 세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놀라운 어드벤처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도티와 영원의 탑’이 지난 12월 8일(금)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크리에이터 시사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티와 영원의 탑’이 최초로 공개됐던 크리에이터 시사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 약 40팀이 참석해 화제성을 입증했다.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사하며 유튜브 185만, 틱톡 1,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신사장’, 코미한 콘텐츠로 162만 구독자를 보유한 ‘파뿌리’, 코미디언 출신의 143만 크리에이터 ‘급식왕’을 포함해 200만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유리야 놀자’와 유쾌하고 신선한 도전을 일삼는 ‘슈뻘맨’ 그리고 가족 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구사하며 323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말이야와 친구들’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여기에 만능 엔터테이너 하하와 가수 강남 등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셀럽들이 참석했다. 개봉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 크리에이터들과 셀럽들의 극찬을 받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도티와 영원의 탑’은 오는 12월 27일 개봉한다. / 유은수 기자



‘미스트롯3’ 김소연X오유진 출격!

트로트 아이돌들이 온다!

‘트로트 아이돌’ 김소연, 오유진이 TV CHOSUN ‘미스트롯3’에 등판한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3’ 참가자들을 향한 열띤 호응이 심상치 않다. ‘미스트롯3’ 실시간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응원글이 쏟아지며 팬덤이 들썩이고 있는 것.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타 오디션에서 우승하거나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들도 다시 도전하는 ‘트로트 오디션 끝판왕’이다.

‘미스&미스터 트롯’ 시리즈 도전 자체가 트로트 가수라면 꼭 거쳐야 하는 등용 문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트로트 아이돌’ 김소연과 오유진의 출격이 화제다. ‘트로트 아이유’ 김소연은 MBC ‘트로트의 민족’ 2위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오유진은 KBS 2TV ‘트롯 전국체전’ 3위 수상자로 ‘트로트 프린세스’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고 있다. 애심한 도전장을 던진 두 사람이 ‘미스트롯3’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은 실력이 짱짱한 어린 참가자들이 대거 지원해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다”라면서 “김소연, 오유진을 비롯해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 과감히 용기를 낸 참가자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미스트롯3’는 기장력은 물론이고 넘치는 끼와 신선한 매력을 갖춘 72인의 참가자들이 출격한다. 무엇보다도 ‘미스&미스터 트롯’ 사상 최초로 1라운드부터 부서별 1대 1 서바이벌 배틀을 벌인다. 파격적이고 잔인한 룰이 도입되며 박진감 넘치는 경연을 예고한다.

‘미스트롯3’는 믿고 보는 MC 김성주를 필두로 초호화 마스터 군단 장윤정·김연자·진성·봄·장민호·김연우·박칼린·황보라·슈퍼주니어 은혁·이진호·빌리 츠키·알고보니 훈수상태가 함께 한다.

세상을 꺾고 뒤집을 TV CHOSUN ‘미스트롯3’는 오는 21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 박정민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unicef.or.kr

아이야,
서투른 도움이라
미안해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아이들을 돋는 일도 마찬가지죠.

만난 적도 없는 먼 나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서툰 부분을

유니세프가 채워줍니다.

서툴러도 좋아요
유니세프가 있으니까요



unicef

02)723-8215 www.unicef.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 연락하시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343-01-0010-741 신한은행 140-001-916222 우체국 010777-01-000305 휴대전화 후원문자 보내기 #2004(한 통화 2000원)



미래의 길을 잊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